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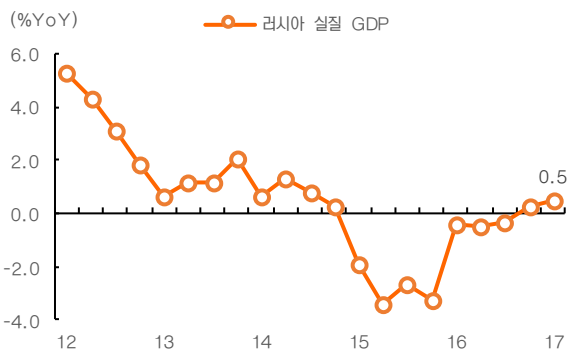
러시아 1분기 GDP 속보

- ◆ 1분기 러시아 GDP 전년동기비 0.5% 증가하며 예상을 상회
- ◆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재고 확충과 소비 확대에 기인
- ◆ 하반기, 민간소비 확대를 중심으로 경기회복세 지속 전망

▶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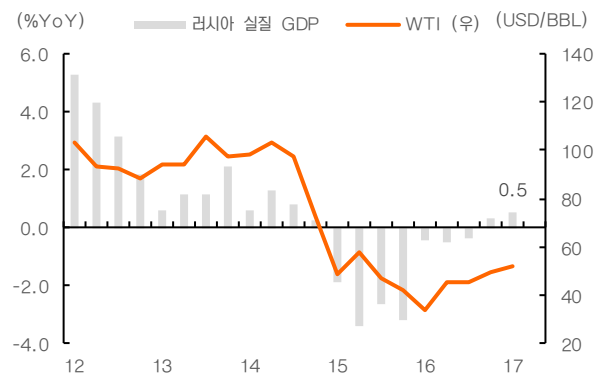
- 러시아 1분기 GDP는 전년동기비 0.5% 증가했으며, 전기(0.3%)에 비해 성장세 소폭 확대
- 시장 예상치는 0.4%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. 이는 러시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가 지난 3월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하향세를 나타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도 낮아졌기 때문
- 속보치인 관계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, 인플레이션 둔화에서 비롯된 실질소득 확대가 소매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동안 경기침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민간소비 감소 영향은 소멸된 것으로 판단
- 다만 최근 국제유가 하향세는 러시아 경기회복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, 현 러시아 정부의 감산 합의 연장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긍정적 요소
- 러시아는 민간소비 확대를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전망. 전체 GDP의 52%를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안정적 증가세는 국제유가에 대한 러시아 경제의 높은 상관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환 변동성 축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
- 또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기조와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재고확충 등은 투자회복에도 기여하여 하반기 1%대 이상의 경제성장 전망

그림 1. 2017년 1분기 GDP 전년동기비 0.5% 성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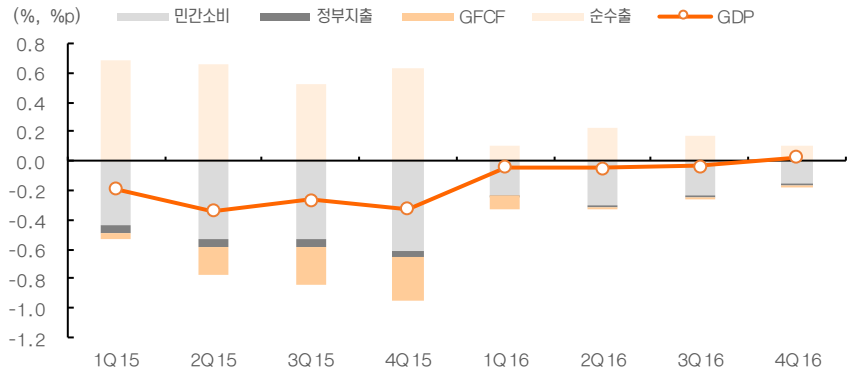
자료: Datastream, KB증권

그림 2. 국제유가 회복에 따른 경기침체 개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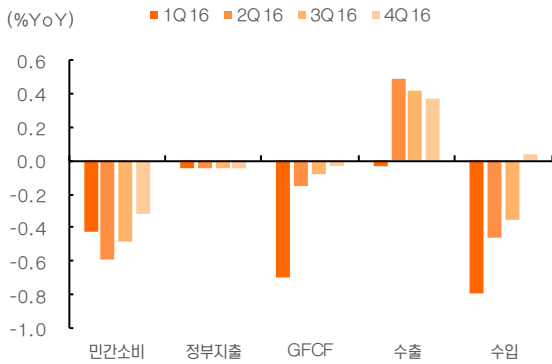
자료: Datastream, KB증권

그림 3. 러시아 경제성장률 및 항목별 기여도,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재고 확충으로 성장 전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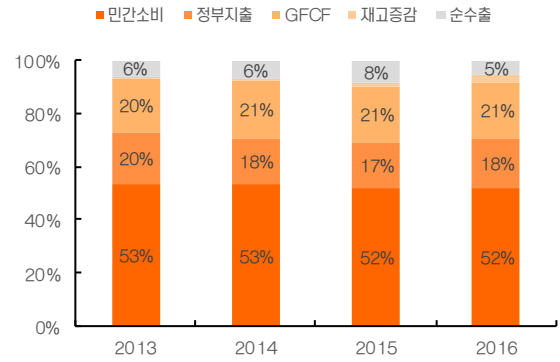
자료: Datastream, KB증권

그림 4.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는 러시아 경기회복을 주도 예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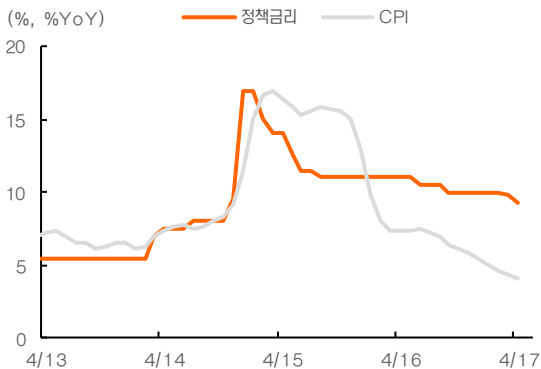
자료: Datastream, KB증권

그림 5. 민간소비는 러시아 경제에서 52%를 차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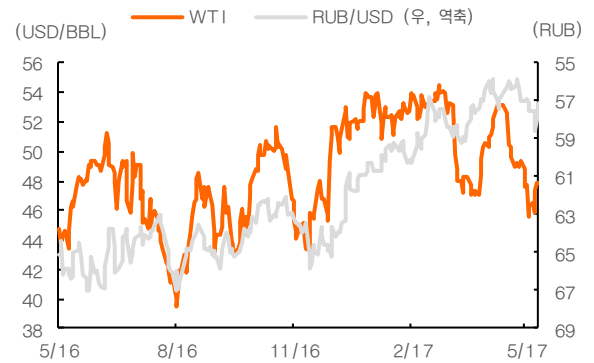
자료: Datastream, KB증권

그림 6. 기준금리 인하기조는 투자회복에 도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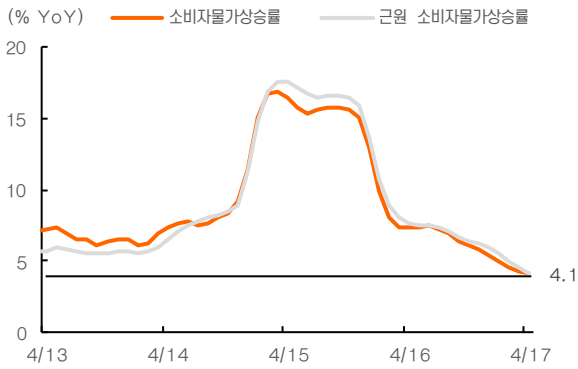
자료: Datastream, KB증권

그림 7. 다만 최근 유가하향세는 러시아 경기회복 지연요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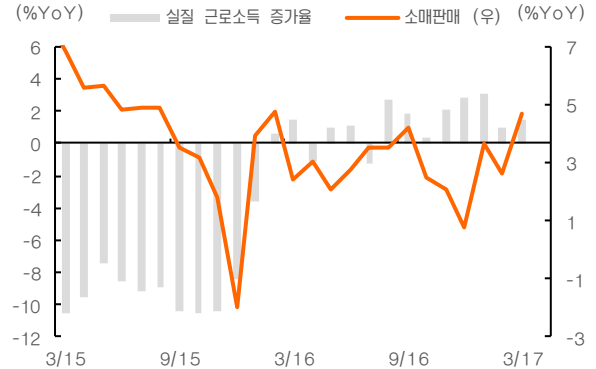
자료: Datastream, KB증권

그림 8. 소비자물가는 식품가격 하락 등으로 안정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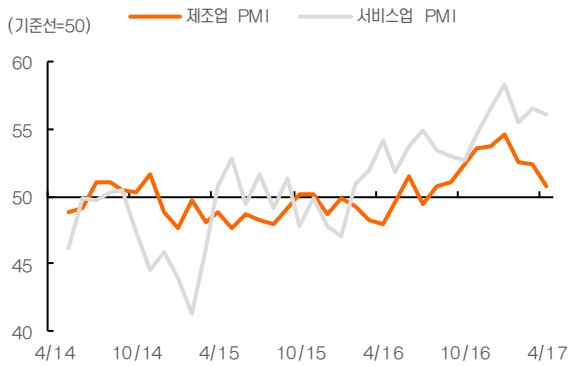
자료: Datastream, KB증권

그림 9.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소매판매 증가세 지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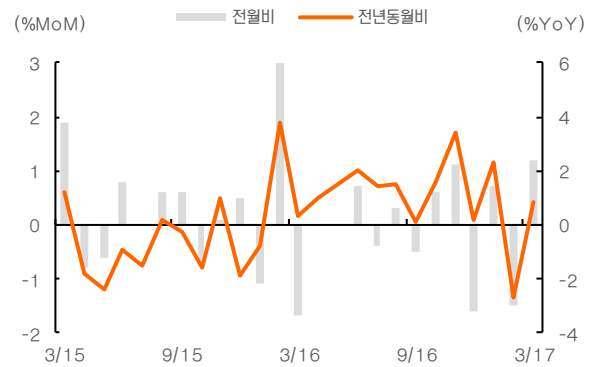
자료: Datastream, KB증권

그림 10.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소프트 지표가 약화되었으나 기준치 상회



자료: Datastream, KB증권

그림 11. 산업생산, 3월 일시적으로 부진했으나 증가세 전환



자료: Datastream, KB증권

투자자 고지사항

- KB증권은 동 조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, 이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.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,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.